흔들리는 20대 :
청년심리학

4강 스스로 결정하는 나

목 차

1 20대의 의사결정

2 판단과 의사결정

3 Mapping your life

1. 20대의 의사결정

20대 의사결정의 중요성(Mackavey et al, 1992)

저명한 학자 50여명의 자서전을 통해 본 결과
80%가 만 18~35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림

1. 20대의 의사결정

1-1. 수 많은 결정

1-2. 뇌의 미성숙

1-1. 수 많은 결정

가능성에 도리어 압도당한 20대

1) 다양한 선택의 피로감

6가지 종류의 잼 vs. 24가지 종류의 잼

종류가 적을수록 판매율 상승

많은 선택의 기회는 청년들을 지치게 함(Iyengar & Lepper, 2000)

1-2. 뇌의 미성숙

1) 발달 중인 뇌

시냅스 가지치기(pruning)

나이가 들면서 시냅스의 자주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경로로 대체되거나 소멸되는 과정. 자주 사용하는 뇌의 경로를 강화

(Bonnie et al., 2015; Petanjek et al., 2011)

감정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여전히 발달중인 청년

2. 판단과 의사결정

연산법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고려해 처리 부담이 큼

어림법

가능 경우 중 일부만 고려해 처리 부담이 적지만 옳은 답을 보장할 수 없음

2. 판단과 의사결정

2-1. 판단의 휴리스틱

2-2. 기타 판단 현상

2-3. 의사결정 이론

2-4. 현명한 의사결정

2. 판단과 의사결정

Daniel Kahneman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휴리스틱과 편향(heuristics and biases)에 관해 연구
인간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판단과 결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함

2-1. 판단의 휴리스틱

휴리스틱(heuristic)

경험 법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그럴 듯한 어림법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방식 (Tversky & Kahneman, 1974)

-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 가용성 (availability)
- 기준점과 조정 (anchoring & adjustment)

1) 대표성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새로운 상황이 자신이 경험했던 고정관념과 얼마나 유사한 지를 기초로 주관적인 확률 판단을 하는 것(Boussaidi, 2013)

아무개 논증(man-who-argument)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내가 잘 아는 '아무개'의 말을 믿는 것 (Relsberg, 2001)

- 인종별 고정관념 (Karlins et al., 1969)
- 뺑소니 목격 진술 (Bedwell, 2015)

기저율 오류(base-rate fallacy)

사전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적인 전형성에 의해서만 판단

(Tversky & Kahneman, 1975)

결합 오류(conjunction fallacy)

단일 사건의 확률보다 두 사건이 결합된 경우의 확률을 더 높게 추정하는 것

(Tversky & Kahneman, 1982)

도박사의 오류(gambler’ s fallacy)

무선 안에도 규칙이 있다고 생각

(Croson & Sundali, 2005)

2] 가용성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관련 정보 중 인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정보처리 방식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정보나 두드러진 정보에 불균형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둠

(Tversky & Kahneman, 1973)

가용한 정보로 판단

K로 시작 vs. K가 세 번째(Tversky & Kahneman, 1974)

K가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들이 더 쉽게 떠올려짐

→ K 첫 번째 단어가 K 세 번째 단어보다 더 많다고 생각

그러나 K가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들이 훨씬 많음

3) 기준점과 조정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anchoring & adjustment heuristic)

어떤 변인을 추정할 때 주어진 초기 값에 우선 기초하고 나중에 조정하는 책략
(Epley & Gilovich, 2006)

질문 시 기준점을 다르게 하여 미시시피 강의 길이를 적어내도록 함
다른 기준점 때문에 답이 1000마일이나 차이 남(McElroy & Dowd, 2007)

1 x 2 x 3 x 4 x 5 x 6 x 7 x 8 → 500으로 예상
8 x 7 x 6 x 5 x 4 x 3 x 2 x 1 → 2,000으로 예상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짐(Tversky & Kahneman, 1974).

2-2. 기타 판단 현상

1) 감정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

감정적 반응 또는 정서의 영향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것
(Slovic et al., 2007)

2) 확증 편향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는 경향
(Nickerson, 1998)

3) 사후 판단 편향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

앞의 일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지난 일의 결과에 대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응의 판단 오류(Fischhoff, 1975)

"내 그럴 줄 알았어" (I-knew-it-all-along 효과; Fischhoff & Beyth, 1975)

4) 착각 상관 편향

착각 상관 (illusory correlation)

굉장한 일에는 굉장한 원인이, 미미한 일에는 미미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예) 음모론(conspiracy theory) (Hamilton & Gifford, 1976)

2-2. 기타 판단 현상

5] 계획의 오류

계획의 오류(planning fallacy)

일을 계획할 때 실제 걸리는 시간보다 소요시간을 과소평가 하는 것

보고서 작성 소요시간(Buehler et al., 1994)

대학생들에게 보고서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 예상하게 함 (예상 소요 시간: 33일)

실제로 보고서를 쓰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55일 걸림

☞계획할 때 소요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 필요

2-3. 의사결정 이론

1) 조망 이론

조망 이론(prospect theory)

잠재적인 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평가할 때는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것(Kahneman & Tversky, 1979)

2. 판단과 의사결정

긍정적인 틀 vs. 부정적인 틀

6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염병에 대해

결과는 같지만 조망하는 틀이 다른 선택권 A, B를 줌

같은 결과이지만 조망하는 것에 따라 선택이 달라짐(Tversky & Kahneman, 1981)

이득 상황 vs. 손실 상황

이득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손실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선택을 함.

같은 결과이지만 조망하는 것에 따라 선택이 달라짐(Levin et al., 1988)

2-4. 현명한 의사결정

1) I7을 통한 의사결정

1. 결정해야 할 문제 파악
2. 정보 수집
3. 대안 파악
4. 우선 순위
5. 독립적 의사결정
6. 즉각 행동
7. 후회 않기